2018-09-17

Energy snapshot

Analyst. 손 지 우 / 3773-8827, jwshon@sk.com

美 무역전쟁을 위협하는 러-中의 에너지 정책

▶ 전 주 동방경제포럼에서 중국, 한국, 일본 모두와 새로운 가스 계약 소식을 발표한 러시아. 그리고 중국도 카타르와 LNG 계약으로 미국에 대한 독립성 확보. 최소한 에너지에서는 무역전쟁에서 밀리지 않는 중국

전 주 중국 / 한국 / 일본 모두와 가스소식을 발표한 러시아

푸틴 "러·일 LNG 협력 강화" 천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개막하는 동방경제포럼을 앞두고, (중략) 아베 일본 총리와 회담 직후 "에너지 분야는 양국 간 협력에 있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두 나라가 함께 착수할 LNG 관련 프로젝트를 지목했다. (중략)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통해 일본은, LNG 공급원을 다양화하고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닛케이아시안리뷰'가 최근 보도했다. (중략) 이 경우 러시아산 LNG는 파나마 운하를 통해 운송되는 미국산 LNG에 비해 우월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후략)

자료 : 뉴데일리(2018년 9월 11일), SK증권

- 지난 9/11 개막한 러시아의 동방경제포럼에서 가스에 관련한 메가톤급 소식이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 첫 번째는 '중-러'입니다. 양국은 이미 38bcm의 대규모 PNG "Power of Siberia 1"을 거의 완공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PNG 라인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시진핑과 푸틴이 직접 논의했다네요
- 소스는 러 에너지 장관 알렉산더 노박(Alexander Novak)이고, "모든 조건이 합의(have been agreed)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 두 번째는 '한-러'입니다. 북한을 경유하는 PNG 라인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소스는 가즈프롬(Gazprom)입니다
- 세 번째는 '일-러'입니다. 푸틴이 직접 양국의 LNG 라인 협력 강화를 천명했고, 일본도 비용절감 효과 때문에 환영했다는 군요

중국도 카타르와 계약으로 미국 LNG에 대한 대처 가능해짐

Qatargas agrees on 22-year LNG supply deal with China

Qatargas said on Monday it had agreed on a 22-year deal with PetroChina International Co, a unit of PetroChina Co, to supply China with around 3.4 million tonnes of liquefied natural gas (LNG) annually, as the nation stepped up efforts to combat air pollution. The Qatari state-owned company will supply LNG from the Qatargas 2 project - a venture between Qatar Petroleum, Exxon Mobil Corp and Total - to receiving terminals across China, with the first cargo to be delivered this month. (후략)

자료 : Reuters(2018년 9월 10일), SK증권

- 한편 지난 주 유사한 시점에서 또 하나의 큰 소식이 나왔습니다. LNG 최대 수출국인 카타르가 최근 가스수입을 급격히 늘리고 있는 중국과 22년간 연간 약 340만톤의 LNG 계약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 현재 중국은 미국과 무역분쟁 상 LNG 관세 25%를 부과하는 등 긴장관계를 보이고 있기에 이 딜은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죠
- 의미 있는 건 중국이 17년 미국 LNG를 2.1bcm(약 190만톤) 수입했었는데, 금번 계약 물량이 이를 능가하는 340만톤이라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즉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Petrochina도 즉시 미국산 수입을 안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만한 배경이 충분하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 러시아가 동북아에 적극 움직이기 시작했고, 중국도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향으로 봤을 때, 최소한 가스에서 만큼은 미중 분쟁에서 중국이 저자세를 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 이상 → 매수 / -15% ~15% → 중립 / -15% 미만 → 매도

SK증권